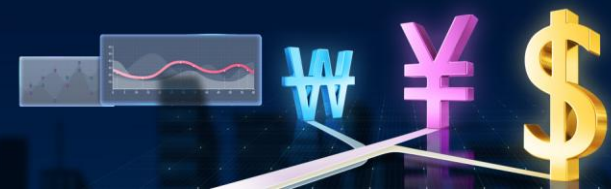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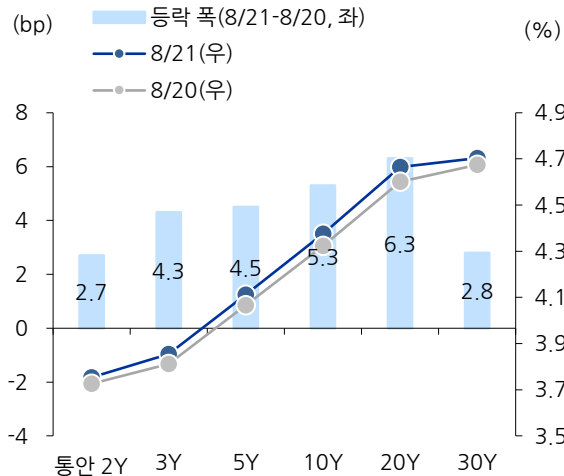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8/21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854%	4.3	7.3
	한국 국고채 10년물	4.376%	5.3	7.8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52.2	51.2	51.7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3.13	-9.0	-16.0
	10년 국채 선물(LKTB)	105.11	-46.0	-52.0
	미국채 2년물	4.237%	4.8	6.4
	미국채 10년물	4.734%	2.7	4.0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9.7	51.7	52.1
	독일국채 10년물	3.271%	0.0	5.1
	호주국채 10년물	5.031%	5.5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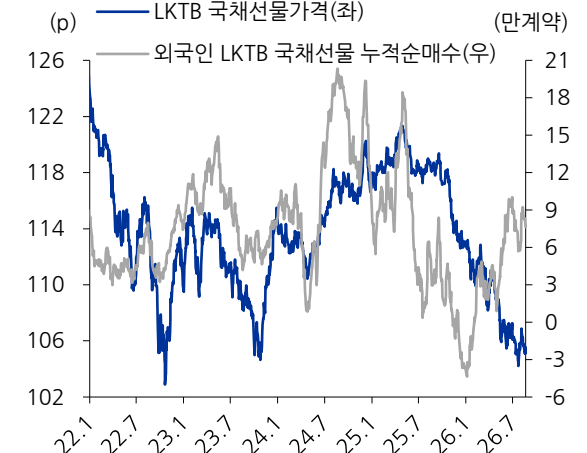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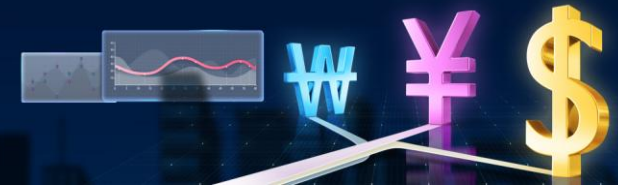
- 국내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
-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조치가 하루 만에 영향력이 제한됐다는 해석에 국내 금리 역시 전날에 비해 상승 전환. 전쟁 우려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5일째 상승한 것도 영향.
- 권민수 신임 한은 부총재가 중립적이고 신중한 발언을 내놓았으나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해석으로 영향력은 제한됨. 재무부에서 초장기물 금리 급등을 언급했으나 30년물을 제외하고 금리 상승폭을 의미있게 되돌리지 못했음.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약세 지속.
- 이란 대통령의 종전 언급으로 개장 초 금리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반등. 비트코인의 급등과 금 선물 상승 현상이 달러 약세를 베풀었다는 해석.
-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조치가 오히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상기시켰으며, 금리 하락을 주도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이라는 인식 때문. 서비스업 주도로 미국 PMI 상승한 가운데 10년물 BEI 상승도 금리 상승을 자극.

자료 출처: 연한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FX & Commodity

(단위: %, \$)

		8/21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386.50	-0.4%	-2.2%	-3.6%
	달러지수	98.84	0.0%	-0.8%	0.6%
	달러/유로	1.168	0.0%	0.9%	-0.6%
	위안/달러(역외)	6.72	-0.1%	-0.3%	-3.8%
	엔/달러	158.94	-0.1%	-0.2%	1.5%
	달러/파운드	1.365	0.1%	0.8%	1.3%
	헤알/달러	5.14	-1.0%	-1.6%	-6.8%
상품	WTI 근월물(\$)	87.06	-0.9%	5.7%	51.6%
	금 현물(\$)	4,603.48	1.9%	5.2%	6.6%
	비트코인(\$)	77,975.00	7.1%	23.6%	-11.3%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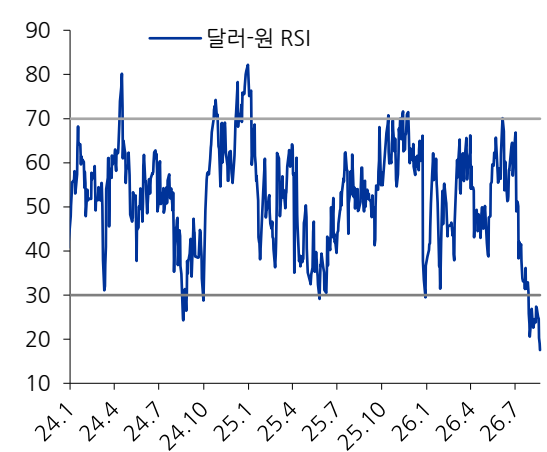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추가 주주환원 기대 등에 원화 강세 심리 이어지며 -6.10원 내린 1,386.50원 마감(야간 1,386.20원).
-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에 더해, 권민수 한은 부총재가 근본적 펀더멘털로는 환율 하향 방향이 맞다고 발언하자 원화강세 심리 강화됨.
- 아시아장 달러 약세 진행되며 역외에서도 달러 매도 우위였음.
- 달러-원은 주간 -31.8원 하락하며 1,400원선을 하향 돌파함. 법인세 중간 납부 수요에 더해 반도체 기업 주주환원에 의한 추가 하락 기대로 당분간 환율 하방 압력이 강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8월 이후 수출업체 환전 수요가 서서히 감소하며 원화 강세 압력 완화될 전망.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RSI)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美 재정 우려와 금리 변화에 따라 등락한 후 보합권 마감.
- 日 7월 전국 CPI 예상 상회로 미-일 금리차 축소 기대 상승했고 미국 재정 우려 높아지며 달러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뉴욕장 美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달러는 하락폭 회복.
- 달러인덱스는 주간 -0.8% 하락. 재무부의 장기물 바이백 확대 발표와 미국 정부부채 40조달러 돌파 소식 등에 미국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높아지며 약세.
- 금주 베센트 장관의 재정 관련 대책 발표와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달러 신뢰성 우려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 美 재정 우려에 의한 추가 장기금리 상승은 달러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